

##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전변의 시대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지난해 국가에서 인민들을 위해 건설한 송화거리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당들과 시설물들의 독특한 건축미에 누구나 감탄을 터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성대한 준공식을 하고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진 화성거리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하여 만사람의 더 큰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송신, 송화거리보다 건설부지가 근 3배에 달하는 화성거리에 일떠선 건축물들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누리게 될 문명의 높이를 현실로 체감하게 한다. 특색있게 뻗어나간 대도도들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키돋움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자태를 자랑하는 형형색색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당들과 시설물들...

화성거리에 펼쳐진 새롭고 독특한 건축양식은 결코 지

상에서만 느낄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채양을 한 지하건물길에 들어서면 지하공간을 방불케 하듯 특색있게 설치된 벽그림판들과 간접조명효과로 하여 시설물의 품위가 한층 살아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터치게 한다.

정녕 화성거리의 새 거리는 로동당시대의 별천지이다.

《사람마다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일떠선 송화거리도 아름답지만 화성거리의 새 거리는 그야말로 장관중의 장관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송화거리에 입사한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했었는데 오늘은 《사람들이여, 화성거리의 새 주인인 우리를 부러워하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있습니다.》

《보면 불수목 회한합니다. 황홀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의 이상향이라는 뜻을, 사회주의 문명이 어떤것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해에 일떠서게 될 새 살림집들은 또 얼마나 멋있겠는지 정말 상상해볼수록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화성거리에 새집들이를 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치는 이 격정의 목소리들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공화국에서 인민을 위해 일떠세우는 새 거리들과 창조물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모습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폐부로 느낄수 있게 한다.

화성거리에 펼쳐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인민의 보금자리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아래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문명을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아본다.

공화국인민들이 훌륭한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이상이고 높으신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화성거리건설과 관련하여서도 설계와 공사일정으로부

리 시작하여 건설력량과 시공분담, 건설자재들과 건설장비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건설마감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화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국책을 반영한 표어를 설치하여 거리의 정치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모든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려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들을 편결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오수분리장, 지하건물길, 버스로선문제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성거리의 새 거리 건설을 위해 친히 보아주시고 완성시켜주신 형성안만도 무려 1630여 건에 달한다.

때로는 집무실에서, 또 언제인가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미흡한것은 더욱 완성시켜주시고 부족한것은 보충

해주시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새 거리,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의 새 리상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꾸려주시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었으면 주변야산에 몸소 한그루 또 한그루 정성껏 나무까지 심으셨겠는가.

진정 인민들에게 행복의 별천지, 사랑의 금방석,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 원대한 리상에 떠받들려 태양의 성지가가되어 사회주의변화가 황홀한 광채를 내뿜으며 희한하게 솟아날수 있었던것이다.

세상에는 변화함을 자랑하는 거리들도 많고 호화주택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시대를 격동시키며 솟아난 공화국의 새 거리, 새 살림집들처럼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야 한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응지, 열렬한 숙원에 받들려 일떠

선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변화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한없이 뜨겁고 그이의 비범한 창조력의 세계는 무한대하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중평온실농장과 평포온실농장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시대의 걸작품,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공화국에서는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펼쳐지고 온 나라의 곳곳마다 누구나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새집들이경사가 려리어 펼쳐지고있다.

지난 4월에도 회창군 신지동리, 평산군 청학농장, 서

흥군 문무리, 재령군 신천포리, 청단군 신생리, 용진군 대기리를 비롯하여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경사가 온 나라를 명절분위기로 더욱 흥성있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문천시, 연안군, 은파군의 여러 농촌마을에서도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

5월에 들어서서도 평안북도의 구성시 상단동, 선천군 김봉리, 운전군 운하리, 동림군 보성리, 삭주군 청수남새농장에 훌륭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지역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문화주택들은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이룩하여 농민근로자들을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다.

누구나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크고 멋있으

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촌문화주택들을 해마다 도처에 수없이 지어 온 나라의 농촌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면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하기에 국가의 배려로 돈한푼 안내고 훌륭한 살림집들을 받아안은 각지의 농민근로자들은 격정에 겨워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국가에서 지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고 새시대 농촌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 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황홀하게 변모될 공화국의 래일, 더욱 문명해질 자기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며 위대한 시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들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리영수



**시** **사랑의 거리, 화성땅의 기념비여!**

김태룡

화창한 4월의 이 봄날 땅우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웃는가 오, 화성거리에 솟은 인민의 거리 밤하늘에 터져오른 환희의 축포는 행복의 꽃보라 축복의 천만꽃송이구나

별을 따내려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 불뛴은 창가는 눈이 시리도록 부신데 하늘을 떠받든 역척기동인양 눈부리 아득한 초고층살림집은 구름우에 올라야 그골이 보일듯

넓게 트인 대문로에 늘씬대는 인과는 행복을 떠시고 굽이쳐온 기쁨의 파도 웃으며 울며 새집의 주인들은 온밤 놓을 줄 모르누나 입사증을 보석인들 그리도 정히 어부랪부라

볼과 1년 너무도 꿈만 같이 솟았구나 기적의 거리 금방석에 앉히고싶은 인민

해마다 넓어지는 새 삶의 터전우에 그림같이 펼쳐진 선경의 거리 황홀하게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여

둘러보라 인민을 울리는 이런 사랑의 집 단 한채인들 이 행성에 서있을가를 인민의 피땀으로 세운 변화가는 있어도 인민이 주인으로 사는 변화가는 없거니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절로 탄성이 쏟아져나오는 멋쟁이집들 그 누구에겐들 물어보라 천금 들어 세운 회한한 이 거리에 돈으로 사들인 집 어디 있으며 돈없다 열리지 않는 집문이 있는가를

그것이 가슴타는 열망이고 소원이여 서 착공의 날에 오셨던 절을 준공의 날에도 이으신 우리 원수님이 그이 은정에 떠받들려 솟은 사랑의 거리

인민을 위해 마음도 많이 써오신 그이 심혈의 응결체 이 땅은 인민의 참세상임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증견자 처 송화에 이어 자본주의화호를 다시한번 짓들러 딛고선 인민의 별천지여

사랑이 흐르고 복락이 넘치는 거리 존엄과 승리가 맥동치는 거리 너는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으로 이 화성땅에 우뚝 솟아 빛나누나 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여!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 국제사회계의 반향 -

근로인민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조선인민은 세상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있다. 인기 어려운 사실은 이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생활향상에 지향되고있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여성들의 산전산후휴가제, 국가 부담에 의한 정유양제를 비롯하여 조선인민이 받고있는 혜택은 막대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주의책속에서 살림집적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로 걱정 등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포린스코아이즈》도 조선을 방문하였던 사람들은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였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실업자나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볼수 없으며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이다.》라고 썼다.

수리아의 한 인사는 조선인민정권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받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적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지방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민기관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사회주의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세계의 곳곳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목소리들은 근로하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격찬이다.

본사기자









